



즉시 배포용: 2022년 5월 1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보복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는 법안 서명

법안(S.8417B/A.9601B), 가정 폭력의 희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 금지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는 가정폭력 희생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S.8417B/A.9601B)은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주택 및 공공 시설과 같이 이전에 보장되지 않았던 차별 영역까지 확대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2022년 시정에서 제안한 주요 입법 우선순위를 달성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 및 성폭력이 가슴 아프게 증가했으며, 뉴욕주는 생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가정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를 여는 것을 도운 이후 생존자들과 함께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을 개인적 우선순위로 삼았습니다. 생존자들이 차별이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인 이 법안에 서명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주택, 교육 및 공공 시설을 포함하여 뉴욕의 차별 금지법이 적용되는 모든 상황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법에 따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를 위한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할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정 폭력 피해자가 인권법의 고용 조항에 따라 보호 계층으로만 다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고용이 피해자가 차별에 직면할 수 있는 유일한 상황은 아니므로 주택 및 공공 숙박 시설과 같은 다른 영역으로의 확장을 필요로 하고 생존자에 대한 뉴욕주의 대응에 생존자 중심, 외상 정보 및 문화 대응 렌즈를 추가로 도입합니다.

뉴욕주 인권법은 미국 최초의 주정부 차별 금지법이었으며, 뉴욕주는 차별 금지법을 시행하는 상설 기관을 설립한 최초의 주정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인권법의 보호를 확대하고 모든 뉴욕 주민들이 차별 없이 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뉴욕주의 지속적인 약속을 반영합니다.

Roxanne Persaud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폭력의 피해자와 생존자에 대한 차별은 그들이 삶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이미 직면한 장벽을 가중시킵니다. 저는 주택, 신용, 공공 시설, 교육 기관 및 생존자들이 부당한 어려움을 겪은 기타 영역에서의 차별에 대한 이러한 보호 조치를 성문화하는 과정에서 **Hochul** 주지사와 협력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한 이 매우 중요한 법안을 도입해 주신 **Nikki Lucas** 동료 하원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떤 뉴욕 시민도 가정 폭력의 희생자나 생존자로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Nikki Lucas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차별에 맞서 싸우는 희생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법안은 이 법률 이전에는 고용 차별로부터만 피해자를 보호했던 인권법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공공 지원 주택, 민간 주택, 견습 교육 프로그램, 공공 숙박 시설, 부동산 전문가 및 기타 분야의 보호가 포함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원 모두 법안에 찬성표를 던져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Hochul** 주지사님이 이 법안을 이렇게 신속하게 법제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매겨준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정 폭력은 주로 여성인 수십만 명의 뉴욕 시민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뉴욕주 가정폭력 예방사무소(OPDV)에 따르면 2020년 뉴욕주에서 165,577건의 가정폭력 보호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뉴욕주 핫라인으로 전화하는 전화가 거의 45% 증가하면서 이 문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가정 폭력 및 성폭행 예방 프로그램과 생존자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을 위한 거의 9,000만 달러의 자금을 포함하여 올해 제정된 2023년 회계연도 예산에서 주지사가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합니다. 주지사는 또한 피해자 서비스 제공자를 지원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중단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 서비스 사무소에 1,440만 달러를 할당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